

일을 하며 하찮은 돈벌이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생각만 하면 내가 괴로워서 가슴이 미어진다.”

비르지니는 이렇게 답했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매일 일을 하고,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느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특히 불행한 자들을 살펴보시니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제게 몇 빈이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어머니를 떠난다니, 차마 그런 각오는 못 하겠어요.”

라 투르 부인은 마음이 벅차올라 대답했지.

“나는 오로지 널 행복하게 해줄 생각밖에 없고, 또 언젠가 너를 네 혈육이 아닌 폴 오빠와 결혼시켜주려는 생각뿐 이란다.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려무나.”

사랑에 빠진 어린 소녀는 세상 모두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네. 자기 마음을 들썩운 장막으로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게지. 하지만 우정 어린 손길이 그 장막을 들어 올리면, 사랑의 은밀한 고통은 문 열린 울타리로 도망치듯 새어나오고, 신중과 비밀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 이제는 순순히 표출되는 신뢰감으로 이어지게 마련일세. 어머니께서 새롭게 온정을 표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인 비르지니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그 증인이셨던 고군분투가